

#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자립도시

### 군산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고용률 61% 달성 전략·과제 제시

군산시는 6일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담은 것으로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7만9천개 창출, 고용률 6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일자리 4대 핵심 전략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정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살리기, 문화,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 등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일자리 지원,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누구나 일하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추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14대 추진과제를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일자리'는 최근 고졸, 고졸미취업 등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년정책 수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및 자립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방위적인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일자리'는 지역 특화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선도기업 유치에 집중하여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밀착 일자리'는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연계한 시민밀착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는 여성, 신중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부문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고용주체 간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일자리사업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멸종위기종 생태습지 '동산동 다래못' 복원

### 환경부, 금개구리·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 선정

익산시가 세계적 희귀조류인 황새 등 천연기념물 보호인 민경강에 이어 동산동 다래못의 멸종위기종 생태습지 복원으로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 메카로 자리매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동산동 다래못 금개구리·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이 환경부의 올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자연환경 훼손을 유발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 및 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지인 다래못은 동산동 438번지(13,900㎡) 일원에 위치한 해방 전후에 저수지로 예로부터 연못에 비친

달빛이 아름답다하여 다래못(달의 못)으로 불리온 곳이다.

유역면적이 꽤 넓었으나 농수로 개설프로 저수지 이용이 적어지고 관리가 소홀하여 지속적인 불법경작,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수질과 토양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사업부지의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부지활용 및 농업용수 유입에 대한 내용과 보전 부담금 납부 주체인 LH와 부담금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대항사업(그린포워드)과 함께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은 물순환 구조 개선으로 생태다양성을 높이고,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처 복원, 기존

인화공원의 산책로와 연계하는 데크로드 등 다양한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와 인접한 민경강에서는 세계적 희귀조류인 황새를 비롯한 저어새, 재두루미 등 법정보호종 17종(천연기념물 12종, 멸종위기-1급 3종, 2급 11종)이 관찰되고 있어 동산동의 유천생태공원~다래못~민경강까지 생태네트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다래못에 추가 시민들의 편의 및 생태학습 등의 시설을 확충 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풍부하고 건강한 생태자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태 체험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힐링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특&톡 운영

군산시가 시민들과 시장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시장 찾아가는 열린 특&톡'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시장과 시민이 대화하는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특&톡'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고정된 일시와 장소가 아닌 시민에게 더 가까이 현장으로 다가가 더 많

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장 찾아가는 열린 특&톡'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원현장 외에도 시민이 원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 사항을 듣고 답변하며 수렴된 의견을 시장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단 1명의 시민이 원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시민

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제안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위해 직접 찾아가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육구읍을 시작으로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찾아가는 열린 특&톡'을 개최할 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여론 모니터링을 통해 개최 시기와 장소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장자교(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 노을·바다위를 걷는 짜릿함

### 군산시, 장자교 스카이워크 10일 개통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장자교(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장자교(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1986년 완공된 길이 288m 기존 교량에 일부구간 확장과 바다 교체 공사를 통해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1억 8천만원을 들여 완공했다.

장자교는 기존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돼 있어 고군산군도 바다 경치 조망이 제한됨에 따라 장자교를 찾는 관광객의 아쉬움이 컸으나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듯 새 단장을 마친 장자교의 바닥판을 철망과 강화유리로 교체해 교량 아래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아찔한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고군산군도가 선정되

어 신들이 노니는 섬으로 표현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장자교의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로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는 신비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 체험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4월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야간에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며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고군산군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군산이 가진 관광자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을 맛집 관광의 명소로 고군산군도, 특히 장자교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45개소 선정

익산시는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농산물 수확 후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 시기 조절 등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을 들여 총 45개소를 선정, 1개소 당 10㎡(3평) 규모의 설치비용 중 부가세 환급금을 제외한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양곡을 제외한 원예·과수·서류 등 발효농산물 1,000㎡ 이상

경작하며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익산시 농업인이다.

신청 접수는 설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도시농업농산유통과에서 접수 받는다. 대상자는 농산유통과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 저하와 수확기 흉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제고와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다이로움 전통 시장 장보기 이벤트 실시

익산시가 설명절을 맞아 전통 시장의 소비촉진과 착한소비운동 활성화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11개소에서 익산다이로움 카드를 통해 3만원 이상 결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이로움 정책수당 1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소비에 보탬을 주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방법은 전통시장 내 다이로움 등록가맹점에서 익산다이로움 카드를 이용해 합산금액 3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시는 1,000명을 추첨해 다이로움 정책수당 1만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농업인 수준별 교육체계 개편·고도화

군산시는 6일 영농 수준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추진부서 일원화로 영농수준별 신기술 보급 및 현장으로 해결을 위한 이론, 실습, 현장 교육을 연계한 단계별 실용교육 지원을 실시한다.

영농입문반, 전문반 등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론 실습, 농가 현장 견학을 연계한 단계별 실용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8월경 완공 예정인 농업인평생교육센터와 지역 농민 상담소 등 온·오프라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산기술, 가공 농업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농·귀농귀촌 등 영농 입문자, 전문 농업인, 특화직업 재배농가 등 다양한 수준에 맞는 분야별·수준별 교육프로그램 및 중장기 전문교육과 디지털 영상교육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